

〈Edge of Gate〉 스토리

0. 창조주

종족은 자신의 창조주를 멸망시키고 감염에 성공한 우주함선을 타고서 은하계를 유유히 횡단한다. 우주 정복을 위하여- 괴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은하계 하나하나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다.

〈Edge of Gate〉 스토리

1. 최초의 게이트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실바니아, 지하도시 아제로스의 작은 철물점 뒤로 최초의 게이트가 열린다. 최초의 게이트는 레벨 3정도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게이트였다. 처음에는 싱크홀인 줄 알았으나 단순 지각변동에 의한 현상과는 분별되는 것으로 또다른 차원의 세계로 향하는 입구처럼 보였다. 갑자기 등장한 게이트에 정부는 이 사건을 엄밀한 기밀에 부쳐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때 투입되었던 인력에는 실바니아에서 홀룡하기로 손꼽혔던 연구원인 피터 스틸러, 아리엘 모비어스의 아버지이자 전 헌터 협회의 수장 니콜라이 모비어스가 있었다.

게이트의 문이 열렸지만, 그곳을 통해 헬민스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게이트 내부를 수색하기 위해 많은 용병이 동원되었으나 그 안에는 무수한 헬민스들이 드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강력한 체구와 점액질을 통해 인간을 압도했다. 점액질에 좀비화가 된 인간은 헬민스 종족과 비슷한 외형으로 변이했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하지만 미지의 존재를 향한 지적갈망과 욕망에 휩싸여 있던 피터 스틸러는 계속해서 나아갔고, 그곳에서 헬민스의 수뇌부를 담당하는 오버시어, 그중 자신의 종족을 배반할 음모를 꾸리던 넥시스를 만나게 된다.

〈Edge of Gate〉 스토리

2. 넥시스와의 거래

넥시스는 피터 스틸러가 본인의 원대한 계획을 도와줄 수 있을 인류임을 한눈에 알아챘다. 그는 헬민스 종족의 기원과 지구라는 행성 바깥 우주적 존재들의 실존은 물론 헬민스 종족의 작동 원리, DNA, 우주 정복의 계략 등 피터 스틸러가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모든지 제공할 수 있음을 대가로 인간 숙주를 요청한다. 인간은 각자가 고유한 정수를 육신에 지니고 있다. 지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 정수가 헬민스 종족에게는 필요했던 것이다. 그냥 정수도 아닌, 우수한 개체의 정수. 그 정수는 헬민스 DNA와 흡사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이 그 기운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피터 스틸러에게 헬민스의 등장은 억겁의 역사를 알려줄 실마리였고, 그런 그에게 15년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단했다. 아이를 하나 데려와 키워야겠다고.

〈Edge of Gate〉 스토리

3. 니콜라이 모비어스

피터 스틸러가 넥시스와 접선하는 동안, 헌터의 수장이었던 니콜라이 모비어스는 게이트 내부에서 치열한 교전 중이었다. 뱅가드의 일방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전우들은 점점 좀비화가 되어갔다. 이미 대부분의 병력을 상실한 헌터부는 공포에 질려 후퇴 지시를 요청했다. 니콜라이가 패주敗走를 고심하던 그 순간, 한 아틸러리가 기다란 꼬리를 이용해 니콜라이를 낚아챘고, 그는 기나긴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몇 시간 뒤, 니콜라이는 끔찍한 고름과 오물이 섞인 악취에 눈을 떴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헬민스의 점액질로 점철된 양손이었다. 그의 피부는 헬민스들의 살갗과 점점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온 몸이 이미 액화되어가고 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뇌리에 에밀리와 아리엘의 모습이 스쳐지나갔다. 그리고 이성을 잃고 숙주화된 자신의 전우들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다. 그와 동시에 거대한 무언가가 동굴의 천장을 뚫고 하강했다. 그는 에이션트 원으로, 수많은 행성을 제패한 헬민스 군단의 리더이자 헬민스, 그 자체인 자였지만 지금은 한 군단을 이끌기엔 너무나 늙어버린 몸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승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이제 무구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에이션트 원은 니콜라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니콜라이는 저항하고 싶었으나 육체는 거의 녹아버린 상태였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고통스런 신음만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니콜라이의 푸른 정수가 공중으로 새어나왔다. 그렇게 니콜라이의 정수는 에이션트 원과 합일되었다. 동시에 게이트는 닫혀버렸다.

〈Edge of Gate〉 스토리

4. 에이든 스틸러

죽은 눈으로 살아가던 에이든 바이어스는 어느날 뜻밖의 인물과 인연이 맺어진다. 그는 교수 피터 스틸러였다. 그는 한 아이를 찾고 있다고 했다. 여자건 남자건 장애가 있건 성질이 어떻건 다 상관 않으며, 오직 다섯 살이면 된다면 피터는 바이어스를 ‘선택한다.’ 에이든은 어려서 병으로 아버지 로한 바이어스를 잃고, 뒤이어 어머니를 잃어 고아원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 어쩔사리 적응해 나가던 에이든은 낯선 이에 의해 반강제적인 입양을 당하게 되고 또다른 혼란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아버지의 유전적인 질환을 이어받은 에이든은 몸이 약했다. 로한 바이어스는 늘 에이든에게 니콜라이의 영웅담을 들려주곤 했다. 그야말로 세기 최고의 전사다. 정의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 에이든은 그 말을 언제나 가슴에 새겼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선잠을 자던 에이든의 팔 위로 주사가 꽂힌다. 그것은 피터가 넥시스로부터 받아온 핵심 DNA 구조를 인류에 최적화시켜 탄생시킨 혈청 주사였다. 내가 너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마. 늘어지는 피터의 목소리를 끝으로 에이든은 거짓말처럼 곤한 잠에 빠지게 된다. 에이든 스틸러가 되는 순간이었다.

에이든 스틸러는 커가면서 양아버지 피터 스틸러에게 묘한 존경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 감정은 그의 엄청난 과학적 열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유약했던 신체를 피터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믿었다. 그와 함께 삶의 동력을 찾게 되었다. 에이든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인류의 안녕에 이바지하는 큰 인재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Edge of Gate〉 스토리

5. 양아버지, 피터 스틸러

피터는 계속해서 헬민스와 우주기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피터는 넥시스와 몰래 접선하는 과정에서 니콜라이가 헬민스의 새로운 왕, 에인션트 원으로서 게이트 내부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비록 끔찍한 몰골이기는 하지만 이성의 절반은 인간의 것으로 유효한 상태여서 하루하루 아주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넥시스는 니콜라이의 정신이 파괴하여 폭주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숙주를 빠르게 넘김 지시한다.

〈Edge of Gate〉 스토리

6. 15년의 끝

도심지에 생성된 게이트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재앙이었다. 실바니아의 화려한 도시 세레니아에 규모 4의 게이트가 생성이 되었으며, 15년 전 최초의 게이트와는 달리 헬민스들이 제 모습을 비쳤다. 게이트에서 새어나온 강력한 에너지 탓에 오버시어 수뇌부와 정신 체계가 이어져 있던 에이든은 정신을 잃게 되고, 시간이 흘러 니콜라이의 딸 아리엘의 품에서 깨어난다. 이들은 사라진 자신들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게이트 너머로 떠나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게 되었고, 에이든은 아리엘의 승낙 하에 헌터부에 입단하게 된다.